

세종 도시 중앙도서관 현상 결과를 보고

Report on Design Competition of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Library

focus

최근에 말 많은 도시가 '세종시'이다. 전 정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것이 잘못 되었고, 공익을 해칠 수 있고, 국가의 운영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도시를 다시 정의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이미 모든 것을 검토하여 결정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다소간 문제는 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 무리가 없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지방선거까지 더해져 가히 난맥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런 복잡한 도시에 지어지게 될 국립도서관 현상결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구전체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경제논리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근거하고 있다. 즉 과욕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월가(Wall ST.)의 금융관련 회사들의 공적자금을 받아 명명을 유지하였는가 하면, 위기를 모면한 현재에는 자신들의 보너스와 급여를 인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선 경제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 단위들이 대규모의 덩치를 이용해, 공공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따라서 덩치가 커진 조직이라면, 사회적 기여와 재분배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덩치가 커졌다면, 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도서관의 좋고 나쁨을 짓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고, 건축에 관한 직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격조건이 있는 분들이 현상설계의 심사를 맡게 된다. 이들의 결론은 공공으로부터 선택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매우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향후, 건축의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이용자들의 가치와 편의를 결정해 주는 것이 되며,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일이 된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선별과정을 기계적인 공학적 논리나, 서로 다른 입장의 심사위원들이 다수결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사과정을 완료하는 일일 순 있지만, 공공에서 주어진 이용자들의 사용가치를 감안하여 중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는 매우 미숙한 과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언제다시 세종시의 운명을 쥐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상설계는 또한, 젊은 건축사들에게는 기성 건축사가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는 파리의 국립도서관 현상을 계기로 국제적인 건축사가 되었고,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는 요코하마의 포트 터미널을 계기로 또한 국제적인 건축사가 되었다. 이는 모두 현상의 심사가 만들어 준 것이다. 그 많은 현상에서 우리가 배출한 건축사는 누가 있는가? 국내의 재능 있는 젊은 건축사들은 다수의 국내 기회에서 좋은 안을 내고 번번히 좌절하고 있고,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를 보고 또 건축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세종시에 지어질 도서관도 이런 좋은 건축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당선안을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또 하나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제도적 정비나 심사를 공정하게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간낭비라 생각한다. 철학 없는 제도 정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축의 가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희생이 될 순 없다는 것이다. 건축은 지어지는 순간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심사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과감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독립되어야 한다. ■



박인수 / Park, In-soo, KIRA
(주)아이마크 건축사사무소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희망제작소 도시공감연구소 연구위원